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시민 강좌 <조각의 모든 것>

홍경한 미술평론가 : 해외 조각공원과 조각
2020. 7. 11 (7회차)

해외 조각공원과 조각

세계에는 정말 많은 조각공원이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 혹은 미술에 대한 애정이 깊은 개인이 만든 조각공원들이다.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해도 무방한 조각공원은 그 역할이 다양하다. 문화예술향유와 공공자산의 보호 및 유산화, 미술사적 의미 등이 복합적으로 녹아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갤러리처럼 소장품을 늘어놓는 수준에 그쳤지만(물론 그것만으로도 부정적이지 않다) 현재는 자연친화적 개념 아래 예술과 생태의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물론 도시인들에게 안락한 쉼과 정신적 여유로움, 안정감을 심어주며 문화예술의 정취를 포함한 생활 속의 예술을 느낄 수 있는 다층적 의미도 지닌다.

대표적인 조각 공원으로는 ‘스툼 킹 아트센터’, 1992년 윌프레드(Wilfred)와 제넷 개스(Jeannette Cass) 설립한 CASS(Sculpture Foundation), 에케베르크 파크, 인호팀 파크, 크롤러 물러 뮤지엄, 치안티 조각공원, 로메이어 조각공원 등으로, 그 외에도 수 없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공원들이 있다. 그나마 있는 정도 다 떨어지는 아베의 극우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먼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어쩌면 종종 방문했음직한 일본의 ‘하꼬네 조각공원’도 세계적인 조각공원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오늘 소개할 조각공원 중 하나인 스톼 킹 아트센터는 1960년 설립된 공원으로 오래된 역사를 지닌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허드슨 강 하류의 아름다운 연못과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특징이다. 이 공원은 설립 이전부터 많은 작품들을 소장하기 시작했는데, 1952년 프리츠 우트루바(Fritz Wotruba)의 <Man Walking>을 시작으로 모두 140여개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 공원 조성에는 막달레나 아바카노비치(Magdalena Abakanowicz), 코스타 알렉스(Kosta Alex), 시아 아르마자니(Siah Armajani), 엘리스 에이콕(Alice Aycok), 솔 베이저먼(Saul Baizerman), 린다 벵글리스(Lynda Benglis), 막스 빌(Max Bill), 로널드 블레이든(Ronald Bladen),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 등, 총 83명의 예술가와 함께 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자리 잡은 '에케베르크 파크'도 유명하다. 2013년 크리스천 링스(Christian Ringnes)가 설립한 이 공원은 오슬로 남동부에 위치한 녹지공간을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조각 작품과 더불어 40종 이상의 새와 야생동물, 희귀한 식물 등이 어우러져 있다는 게 눈에 띈다. 이들 생명체는 모두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를 비롯한 어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르누아르(Renoir)의 작품을 볼 수 있다.

2002년 베르나르도 파즈(Bernardo Paz)의 인호팀(Inhotim)이 브라질에 설립한 '인호팀' 공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조각공원은 단순한 공원의 기능을 넘어 현대미술을 보존하고 전시, 제작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기관이라는 데 있다. 사실상 브라질에서 유일하게 상설 전시를 열고 있는 현대미술의 요체로, 조각 작품은 물론 희귀한 남미 식물과도 만날 수 있는 식물원 성격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엔 세계적인 현대미술가인 애니쉬 카푸어(Anish Kapoor)와 퉁가(Tunga)의 작품, 올라프 엘리아손(Olafur Eliasson)의 전망 기구도 볼 수 있다. 특히 끝없이 확장되는 자연을 강조한 케일리디스코픽 터널(kaleidoscopic tunnel)은 이 조각공원의 핸드마크이다.

이밖에도 유럽 160여점의 조각품을 포함해 회화, 판화 등의 작품 20,0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자랑 '크롤러 물러 뮤지엄', 2004년 미술 애호가들에 의해 설립된 이탈리아의 '치안티 조각공원', 1976년 미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전용 조각 공원으로 미주리에 설립된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 공원(로메이어 조각공원)' 등도 주요 조각공원으로 꼽힌다.

자, 그럼 오늘은 대표적인 세계조각공원과 그 내부에 파리 튠 조각 작품에 대해 들여다보자.